

추모사

김신묵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

박 영 숙

어머님!

저는 오늘 여기에 이중의 슬픔을 안고 섰습니다

하나의 슬픔은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통일의 어머니이신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우리 곁에서 영영 떠나시게 하는 일이며, 또 하나는 다시금 문 목사님께서 전주교도소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슬픔입니다.

어머님께서 운명하시기 나흘 전, 그토록 목메어 보고싶어 하시던 문 목사님이 전주에서 먼길을 문병오셨던 날은 어머님께서 생기를 되찾으신 것도 한숨 놓였지만 문 목사님이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님께서서는 숨을 몰아 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순이 녀은 내 아들이 칠 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 에미의 심정이 어 떻겠어... 나는 이번에 죽기를 각오하고 한판 싸움을 걸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라고 하셨습니다.

칠십 년대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 나라의 민주 제단에 생명 혹은 삶 전체를 바친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의 뼈가 으스스리는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에 급하셔서, 어머님 자신의 속아리는 입 밖에 내시지 않으시던 어머님의 가슴은 숯덩이가 되었던 것을 저희는 미처 헤아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한 아드님은 다섯 번이나 때로는 두 아들을 함께 감옥에 보내는 아픔을 겪으신 분이셔서 누구보다 더 민가협 어머님들의 가슴을 헤아릴 수가 있었으며, 그들 또한 어머님의 위로가 가장 큰 버팀돌로 삼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삶을 끝내는 날 참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임종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남기신 기도 속에서 저희들은 어머님의 소원만이 아닌 이 세대의 한국의 어머님의 소원을 짚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임종시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통일도 되어 가고 내 아들도 석방되고 온 식구가 하나같이 민족의 제단에 바쳐졌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나라를 위해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주적인 민족으로 제힘을 기르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신 기도와 함께 어머님께서서는 최후까지 병환으로 인한 고통을 모두 잊고 가족들에게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주기를 유언하시며, 조국의 통일을 마지막 소원으로 기도하신 어머님의 삶을 마감하시는 모습은 바로 어머님의 전생애를 거울에 비치듯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부모에게서 이어받으신 신앙으로

일생을 한결같이 참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간직하시고 목사님이신 남편을 소리없이 내조하시며, 저 유명한 독립정신의 본산과도 같은 용정의 명동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독립투사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끝내는 보다 주체적인 독립운동을 하시기 위해 어머니 자신이 여성결사대에 참여하셨다는 일은 어머니의 기개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칠십 년대 유신체제하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으로서 용감하고 훌륭한 분들은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족처럼 하나로 뭉쳐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린 중손에 이르기까지, 가족 전체가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전선에 그토록 용감하게 나선 가족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가 그 정신적 원천이요 기둥이었던 것으로 짐작하며 감격스럽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때로는 그 노구를 이끄시고 데모 전선에까지 나서시는 모습을 뵈 때마다 한편 저희 젊은이들에게 크게 고무되는 반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들에게 잊지 못할 많은 것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언제나 약자 편을 들어 주신 것, 여성차별은 절대 용인하지 않은 것, 컴퓨터와도 같으신 놀라운 기억력, 신문을 정독하셔서 전문가에게 뒤지지 않으신 정세분석력, 검소한 생활, 무엇보다 더 저희들에게 보여 주신 삶의 모범은 고부간의 애정관계였습니다. 박용길 장로님의 회갑맞이는 문 목사님이 영어의 기간이었습니다. 종로 5가에서 구속자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할 때였습니다. 그 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며느님이신 박 장로님은 육십 평생 새 속옷 한번 사 입어보지 못하고 항상 식구들의 낡은 옷을 개조해서 입으셨다고 애처로워 하셨던 일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임종하실 때 통일도 되고 아들도 석방된 것으로 아시고 이제는 평안히 박수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을 환영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도 통일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개가 너무도 많고, 이 정부는 어머니의 아들이신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임수경 양, 문규현 신부, 유원호 선생 그리고 서경원 의원 등, 꼭 막힌 민족의 분단의 물꼬를 몸으로 헤치려 했던 이들을 석방하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남북 고위회담을 열고 누구나 자유 왕래를 허락한다는 말은 크게 소리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통일의 문제를 정부에게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염려마십시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어머니의 아들과 통일을 염원하다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풀려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김신묵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작고 큰 어머니의 분신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민주통일전선에 나서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분신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저들은 마침내 반통일 세력을 물리치고 분단의 비극을 영구히 끝내는 승리를 가져오고야 말 것입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그 슬한 슬픔과 고뇌를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승리의 날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언덕에서 칠십오 년간 생을 같이 하셨던 문재린 목사님과 나란히 그 승리를 보시며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머니를 슬픔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유언대로 개신장군을 보내는 군중들처럼 박수로서 보내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텅 비게 하시고 떠나시는 어머니, 부디 평안히 쉬소서.